

오전9시, 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 예배부름	.....	인도자
※ 예배기원	.....	인도자
※ 경배찬송	..... 14장(전능왕 오셔서).....	다 같이
※ 교독문	..... 96(어린이주일).....	다 같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 564(예수께서 오실때에).....	다 같이
예배기도	..... 1부 원혜경집사 2부 강항구장로	
응답송	.....	찬양대
이달의찬양	..... “축복송”.....	다 같이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	다 같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옵소서.</li> <li>*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 주옵소서.</li> <li>*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li> </ul>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 출애굽기 2:1-10.....	김선주집사
찬양	.....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b>“ 준수한 부모가 되라 ”</b>	
기도	.....	최세열목사
◆응답하는 예배◆		
찬송	..... 569장(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다 같이
봉헌	..... (교회학교).....	다 같이
봉헌기도	.....	담임목사
유아세례축복	.....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	말은이
※ 찬송	.....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이
※ 축도	.....	담임목사
※ 축복송	.....	찬양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 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시백기도회(월-금)	
인도 / 최세열목사	찬양 / 다함께	인도 / 최세열목사	찬양 / 다함께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기도 / 오복실권사	본문 / 누가복음 4:18-19	기도 / 한마음기도	본문 / 사무엘상16:6-13	시편강해	
말씀 / 최세열목사	교회를 경험하는 삶 32과 “복음의 핵심”	말씀 / 최세열목사	“자녀로서의 다윗”	<b>금요기도회</b>	
축도 / 최세열목사	축도 / 최세열목사	주기도문 / 다같이	주기도문 / 다같이	금요일 오후8시	합침기도, 중보기도, 개인기도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혜경	다음주 기도	1부	차소라집사
	현금위원	오복실 안복선 노대성		2부	강항구장로
		5월 박기환 정선례 김귀례 송영임	다음주	1부	말은이
		6월 김기희 허웅 박현순 정재영	성경봉독	2부	한옥자권사
식당봉사	금주 에스더B	다음주 루디아A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강진숙권사	
헌신찬양	금주 교회학교	다음주	예배사역팀		

### “준수한 부모가 되라” / 출애굽기 2:1-10

한 생명의 출생은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출산이 반드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둘째나 셋째 아이인 경우 양육에 대한 어려움으로 부모와 혹은 가족들에게 때때로 큰 부담이 됩니다.

출애굽기 2장의 상황은 자녀출산이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노예의 수를 줄이기 위해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도록 했습니다. 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아들을 출산한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 1. 잘 생긴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 레위인 가정이 아이를 낳았는데 출산의 기쁨은 잠시였고, 곧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바로의 명령대로 할 수 없어서 석 달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2절)라고 말합니다. 잘 생겼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에서 잘 생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토브’인데 이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때 좋았다는 표현입니다.

‘잘 생겼다’, ‘준수하다’(개정판), ‘아름다운지라’(행7:20)는 이 표현들은 모두 태어난 아이의 외모를 넘어서 그 마음의 자질과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아이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과 특별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을 배웁니다.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자녀의 특별함 혹은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외모와 건강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위대함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 2. 갈대상자에 태워 보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더 이상 숨기기 어렵게 되자 결단을 합니다.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해 방수를 하고 아이를 태워 나일강 갈대사이 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누이 미리암으로 하여금 지켜보게 했습니다. 이같은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아픔과 요게벳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위탁하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들이 아이의 운명을 통제하려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이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참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재능을 은사를 주셨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3. 어머니가 유모가 되었습니다.

바로 왕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위탁한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니 다. 그리고 미리암은 공주에게 아이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합니다. 아이는 4.5세까지 어머니인 유모의 품에서 성장한 후에 공주에게로 갑니다. 이 어린 시절에 배운 하나님 신앙은 결국 모세로 하여금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합니다. 오늘 우리시대는 학원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학원에서 가르쳐 지리라고 생각하지만 인성과 사회성과 인간관계는 결국 가정의 몫입니다. 신앙교육이 잘 갖추어진 교회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정에서 부모의 모범이야말로 최고의 신앙교육입니다. 자녀들에게 다양한 지식을 가르치듯이 성경을 가르친다면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앙주제로 나누는 구역예배(신앙주제5: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  
5/6 제2과 선교의 원리(마태복음 10:16-20절)

#### 말씀 살피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교의 원리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선교 실습을 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이 과의 성경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교활동에 파송하며 하신 말씀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 말씀 묵상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선교활동이 오히려 저항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교활동 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할 때 순탄하고 성과가 바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선교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선교의 원리'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 선교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선교가 잘 실행되고 좋은 성과를 거두려면 지혜로운 방법과 순결한 처세가 필요합니다. 선교의 방법에 따라서 선교의 효과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각자 그들에게 적합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처세하면서 그들을 얻고자 했습니다(고전9:19-22). 마술의 흥행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어려운 에베소에서는 제자교육을 하면서 선교의 효과를 높였습니다(행19:8-10). 생업이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부부와 함께 생활하면서 고린도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행18:2-3) 선교에서 대상을 이해하고 거기에 적합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둘째, 대적자들 앞에 설 때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총독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 앞에 섰을 때 바울은 그 순간을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행 26 장). 또한,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에 압송되자 거기서 복음을 전하여 로마 복음화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선교는 대적자들의 훼방을 극복하고 환경과 역사를 바꾸어가는 대담한 도전이어야 합니다.

#### 셋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말하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할 말을 주십니다. 선교에서 성령의 도우심은 필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전, '먼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하십니다(눅24:48-49).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행 1:8).

#### 말씀 적용

1. 선교활동 중 당한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한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해봅시다.
2. 선교활동 중에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한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봅시다.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가르치는 교사들을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배 후 각 신도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3. 다음주일에 제직회가 있습니다.
4. 5월 평신도 참여예배(5/20)는 에스더회입니다. 에스더회는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든솔 선교활동이 5월 14일(토)에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오전8:30 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예들과 봉사**

- 십 일 조 : 김한순 강항구 류종란 박치국 이영란 나금옥 조종순 김종천 이영선 안해숙 윤승호 최경선 엄현환 김혜경 김춘자 김선주 원혜경 이종봉 이춘호 정숙자
- 감사헌금 : 김선주 원혜경 김병진 김귀례 김혜경 양희임 심문자 박광섭 (일천번제) 김동현 김지환 한진현 한재현
- 건축헌금 : 강항구 류종란 김선주 원혜경 박치국 이영란 심승기 정숙자 김혜경 양석임 안해숙 김동현 베드로회
- 비전씨앗 : 배영인 김하윤 홍효준 강소윤 김서이 윤은혜 최지현 최정현

**구역 예배를 통한 특옴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공영순	천사라	3	25,000			7	이영선	김홍영					
2	정정희	김한순	이현옥	3	12,000			8	김순님	오복실					
3	이춘호	함경숙	심문자	4	20,000	50		9	김인순	이영란					
4	김기희	김경희	주종민	4	16,000	36		10	장영분	노순영	장영분	2	10,000		
5	이문순	원혜경						계				20	121,000	172	
6	류종란	김애자	김혜경	4	51,000	86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1:00	도 서 실

**어린이의 기능 상실증**

에릭 번(Eric Bern)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성격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버지 기능으로 권위적이고 양육적인 기능으로 자신보다 약한 자를 보살피고 가르치는 기능입니다.

둘째는 어른 기능으로 현실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기능입니다.

셋째는 어린이 기능으로 인간에게 순수성과 생동감을 주고 인간 본연의 맛을 나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중에 특히 어린이 기능은 울고 웃고 하는 놀이의 기능으로 인간의 삶을 풍부하게 소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캔터기 주립병원에는 한 때 여섯명의 지도층 인사가 정신 이상으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병명은 '어린이 상실증'이었습니다.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하고, 웃고 싶을 때 웃지 못하고, 놀고 싶을 때 놀지 못하다가 어느 날 정신이 이상해지는 병이었습니다. 어린이 기능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온전한 인간성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현대인은 대부분 이들과처럼 어린이 기능, 즉 마음속에서 살아서 뛰 어 놀아야 할 어린이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삭막해지고 메말라 갑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어린이들에게서 어린이의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린이의 미래를 보라**

독일에 한 나이 많은 교장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아침에 아이들 교실에 들어가 언제나 모자를 벗고 예의를 갖추어 어린 학생들에게 머리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교장선생님이 왜 먼저 예의를 갖추어 인사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소년들 중에 장차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인사드리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년들 중의 하나가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였던 것입니다. 그 교장 선생님은 정문 앞에서 서서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먼저 인사하려고 머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먼저 귀하게 여기면 아이들은 어른들을 자연스럽게 공경하게 됩니다.

**원전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한다”

2018-18호 2018.5.6.

**부활절 여섯째 주일 / 어린이주일**

주의 자녀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푸른 5월 생동하는 대자연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어린이를 통해 겸손과 온유를 가르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길 잃고 방황하는 어린이아이 같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신 은혜에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죄의 그늘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서 대속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심령을 타락시키려고 유혹하는 죄에 대해 철저히 맞서려하지도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각한 죄는 죄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는 비겁함에 있습니다. 어린이아이같이 좋고 싫은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추는데 있습니다. 음흉한 마음을 감추고 살아가는 것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 죄입니다. 오, 주님! 어서 속히 그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밝고 싱싱한 5월의 풀밭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닫힌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상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무엇보다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결단합니다. 물질을 물려주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세상 지식 정보를 챙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삶이야말로 우리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복임을 깨닫게 하여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담임목사 : 최세일(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담당:정언태목사 지휘:손효모 반주:김은영 최지현**